



## ‘허심’ 잡아라

〈허정무 감독 마음〉

‘허심(許心)을 차지하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3차 예선 3차전 요르단전(31일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을 앞둔 태극전사들이 허정무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허정무 감독은 28일 치러진 고양 국민은행과 연습경기를 끝난 뒤 “시간이 많지 않다. 출전선수 명단을 짤 시간이 오늘 밖에 없다”며 요르단전에 나설 베스

트 11의 유파를 어느 정도 확정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 ‘허정무호’ 내일 요르단전 주전경쟁 치열

#### 해외파 이영표·설기현 선발출전 불투명

◇베스트 11의 빼내는 잡혔다 = 허 감독은 국민은행전 1쿼터에 4-3-3 전술을 기본으로 박주영(서울)을 꼭짓점으로 좌우에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정용(서울)을 내세우고 안정환(부산)을 쳐진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시켰다.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해외파는 물론 국내파 선수들도 소속팀에서 주전급으로 활약을 펼쳐왔던 터라 특별한 전술훈련이 없었지만 안정된 플레이를 선보이며 박주영의 골로 1-0 상황에서 1쿼터를 마쳤다.

김동진(제니트)-이정수(수원)-강민수(전남)-오범석(사마라)이 오랜 만에 호흡을 맞춘 포백(4-back)은 큰 과실이 없었고, 더불어 볼란테로 나선 김남일(빗셀)

고베)과 조원희(수원)도 과감한 태클로 역습을 저지해 내면서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하지만 2, 3쿼터에 백업 멤버들이 투입되면서 경기 내용은 나빠졌고, 일부 선수들의 경우 “실망스러웠다”는 허 감독의 질책까지 받았다.

이 때문에 허 감독은 내심 1쿼터에 나섰던 선수들을 위주로 요르단전을 치를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해외파 ‘위기의 시절’ = 허 감독은 소집훈련 첫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지성이라도 컨디션이 나쁜면 뺄 수 있다’며 선수들의 경쟁의식을 독려했지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선수라면 경쟁된 선수”라며 해외파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국민은행전에서 대표팀 불밖이 베스트 멤버로 활약해온 이영표와 설기현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허 감독의 신뢰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2, 3쿼터를 치르면서 해외파답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던 이영표(토트넘)와 설기현(풀럼)은 각각 김동진과 이정용에게 선발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지성과 오범석, 김남일은 허 감독의 ‘OK’ 인상을 받았다.

특히 내달 22일까지 ‘자옥의 4연전’을 치르는 대표팀은 첫 단추를 끊는 요르단과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하는 만큼 과감히 컨디션이 나쁜 해외파를 과감히 빼고 경기 감각이 좋은 국내파 선수를 대거 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대구FC 이근호 요르단전 대표팀 합류

프로축구 대구FC 간판 공격수 이근호(23)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요르단 전에 나설 대표팀에 합류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9일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된 공격수 조동건(22·성남)

의 대체 선수로 이근호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조동건은 소집 명단 25명에 이름을 올려 처음 태극마크를 달 기회를 잡았지만 오른쪽 경강이 빠져 골절을 이유로 끝내 낙마했다.

요르단 전 예비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소집 명단에는 들지 못했던 이근호는 조동건의 부상으로 대신 대표팀 훈련에 참가하게 됐다. 2004년 프로에 데뷔해 인천 유나이티드를 거쳐 대구에 동지를 틈 이근호는 지난 시즌 27경기에서 10골을 넣고 3개 도움을 보탰으며 올 시즌에는 15경기에서 출전해 7골을 터뜨렸다. 또 2008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공격수로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 웨스트브롬 김두현 이적료 11억2,900만원

다음 시즌부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김두현(26·웨스트브롬)의 완전 이적에 따른 계약 조건이 공개됐다.

웨스트브롬은 29일(한국시간) 구단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두현이 이적료 55만 파운드(한화 11억2천900만원)에 전 소속팀인 성남 일화에서 완전 이적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국내 프로축구 성남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김두현은 지난 2월 ‘6개월 임대’ 뒤 완전 이적’ 조건으로 웨스트브롬에 입단하고 소속팀이 올 시즌 웹피언십(2부) 1위로 1부로 승격할 때 따라 2008-2009 시즌부터 제5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로 활약한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다음 달 2일 구단과 정식 계약하며 구단이 원하면 2010년 이후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돼 있다.

지난해까지 국내 프로축구 성남 유니폼을



광주소년체전 개막행사 리허설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29일 개막행사가 열리는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리허설이 진행됐다. 31일부터 6월3일까지 4일간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소년체전에는 16개 시도와 해외지부(일본)에서 총 1만 6천 816명의 선수단(선수 1만 1천 893명·임원 4천 923명)이 참가해 32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연합뉴스

## 유승민-왕하오 한판 승부 이뤄지나?

〈세계 8위〉 〈세계 1위〉

한국 남자 탁구의 간판인 유승민(삼성생명)이 2008 베이징올림픽 전초전에서 세계 1인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왕하오(중국)의 벽을 넘을까.

세계랭킹 8위 유승민은 29일 대전대 맥센터에서 개막한 ‘풀크스바겐 코리아 오픈 2008’ 남자 단식 대진 추첨 결과, 천적인 마린(중국·세계 2위)과 유럽 강호 티모(독일·6위),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달성한 왕리친(중국·3위)과 초반 대결은 피했다.

유승민은 그러나 4번 시드를 받아 64강부터 순항하더라도 톱시드인 세계 1위 왕하오와 8강에서 만날 공산이 커졌다.

유승민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결승에서 왕하오를 4-2로 꺾고 금메달을 땄지만 이후 4년 가까이 왕하오와 9차례

### 풀크스바겐 코리아 탁구

#### 8강전서 만날 가능성 커



〈유승민〉 〈왕하오〉

맞붙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채 상대전적 2승15패로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지만 이후 4년 가까이 왕하오와 9차례

30일 첫 경기에 나서는 유승민은 32강까지 큰 적수는 없지만 8강 길목에서 ‘수비 달인’ 주세혁(삼성생명)을 꺾어야 왕하오와 지난해 12월 그랜드파이널 스 16강 패배 이후 5개월 만에 만날 전망이다.

지난해 대회 2관왕에 올랐던 오상은(KT&G·9위)은 3번 시드를 받아 4강 문턱에서 중국의 차세대 에이스 마룽(4위)과 맞대결할 가능성이 높다.

여부에서는 중국·일본본선에서 2회 연속 2관왕을 차지한 ‘탁구여왕’ 장이닝(중국)이 불참한 가운데 김경아(10위)와 당시에서(27위·이상 대한항공)가 세계 2위 쿠웨이(중국)와 결승 이전에 만나지 않지만 1회전을 통과하면 32강에서 외나무 다리 대결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NBA 플레이오프 8강전 대구경기장

31일(토) 결승 5차전(샌안토니오 : LA레이커스)

(10 : 00-SBS스포츠)

▲힐스테이트 서경 오픈 1R(14 : 00-KBS2)

▲SBS 코리안투어 금호아시아나 오픈 2R(14 : 10-SBS골프)

▲2008 삼성 파브 프로야구(롯데 : 우리) 18 : 00-SBS스포츠(KIA : 두산)

(18 : 00-KBS N SPORTS)(삼성 : SK)

(18 : 20-XPORTS)(한화 : LG)(18 : 30-ESPN)

MBC ESPN)

31일(토)

▲2008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2R(04 : 00-SBS스포츠-SBS골프)

▲2008 LPGA 긴 트리뷰트 2R(05 : 00-SBS골프)

▲2008 메이저리그(보스턴 : 블티모어)

(07 : 55-XPORTS)

▲07/08 NBA 동부 컨퍼런스 결승 6차전(보스턴 : 디트로이트)(09 : 30-MBC ESPN)

## 법원경매 전문

###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경매컨설팅 업)

062-226-0047~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최적화 전문상담

#### 아파트/빌라

대표이사 010-3666-8448

소재지 대/전/월/감정가 최저가

월간동 83/47 19,650만 740만

월간동 73/77 4,900만 19,900만

월간동 104/51 29,600만 19,800만

월간동 02/23 29,700만 19,900만

월간동 40/41 51,000만 64,000만

월간동 57/47 1억 2000만 88,100만

월간동 50/52 1억 100만 92,000만

월간동 38/25 1억 2000만 87,000만

월간동 48/46 1억 100만 86,000만

월간동 71/62 1억 2000만 81,000만

월간동 57/28 58,000만 58,000만

월간동 43 4,900만 8,000만

월간동 62/46 2억 7000만 7,000만

월간동 11/39 1억 2000만 7,000만

월간동 30/29 1억 7000만 7,000만

월간동 24/48 1억 7000만 7,000만

월간동 15/21 1억 7000만 7,000만

월간동 29/13 1억 7000만 7,000만

월간동 50/30 1억 7000만 7,000만

월간동 59/23 5억 6000만 2억 7000만

월간동 27 1억 2000만 6,000만

월간동 12 4억 8000만 4억 8000만

월간동 19 8억 8000만 4억 8000만

월간동 40/38 1억 2000만 4억 2000만

월간동 34 1억 6000만 4억 6000만

월간동 42 2억 5000만 4억 5000만

월간동 34 1억 6000만 4억 6000만

월간동 34 1억 6000만 4억 6000만